

#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흡연지식, 흡연태도와 흡연경험

정영숙\* · 소 현\*\*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 \*\*전북 완주군 화산초등학교

## 〈 목 차 〉

I. 서론	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V. 고찰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의 변화를 보면 1980년도에 남자의 경우 79.3%이었던 것이 2002에는 60.5%로 감소하였으나 이를 연령별로 20대 성인과 30대 성인에 있어서는 각각 71.1%, 66.5%의 높은 흡연율이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1999년도에는 흡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세계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이와 같이 최근의 중·고등학교 흡연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지역

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일선 보건사업기관인 보건소와 청소년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기관과 가정에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사업을 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초의 흡연시기가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WHO(1992)에서도 흡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동기부터이다

교신저자 : 정영숙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신 2-20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63-270-3125, E-mail: cys@moak.chonbuk.ac.kr

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흡연예방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억제방안으로서 초등학교시기에 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권장한 바 있다(CDC, 1994).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보건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 사회운동 차원, 교육적인 차원, 가정교육 차원에서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 건강에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교육계, 산업계,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필요성이 강력히 제시되어 주로 보건소팀과 보건관련 교육자들에 의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J지역 보건소에서는 1998년부터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1년부터 금연사업의 주요 초점 대상자를 청소년 특히 초등학교집단에 두고 흡연예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서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전국의 경향에 따라 농촌지역인 J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흡연지식과 흡연태도를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사업의 계획과 실시 및 평가에 기본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 초등학교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농촌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흡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흡연예방교육사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계획에 중요한 기본자료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의 흡연경험 율(과거 흡연경험 율 및 현재 흡연 율)을 파악한다.
2. 초등학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 율을 파악한다.
3. 초등학교의 흡연경험자의 흡연양상 및 관련 상황을 파악한다.
4. 초등학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수준을 파악한다.
5. 초등학교의 일반특성별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수준의 차이를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J지역 초등학교의 흡연경험 율, 흡연실태, 흡연예방지식, 흡연예방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이다.

### 2. 연구대상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 11월 현재 J지역에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4,5,6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총 15개 초등학교 중에 4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연구대상 학교의 재학생 3,4,5,6학년 전수 5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흡연관련 인구 사회적 환경

학년, 성별, 학업성적 등을 포함하여 초등학생이 항상 접촉하고 있는 환경 중 가까운 친구수와 흡연유무, 가족 중 흡연자 유무, 친구나 선배로부터 흡연권유 유무, 학교생활, 학업성적 정도, 흡연예방교육유무를 조사하였다.

#### 2) 흡연예방지식 및 태도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표는 WHO(1982)에서 흡연실태조사내용지침서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박영규, 강운주(199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금연사업 전문가 2인과 초등학교 교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고 연구대상 외 지역의 초등학생 40명에게 예비조사를 함으로서 어휘와 순서를 수정·보완하였다.

흡연지식측정도구와 흡연태도 측정도구는 각각 20문항씩 총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목척도에 따라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적신뢰도는 흡연지식문항은 Cronbach's  $\alpha$ 값 .7943와 흡연태도문항 .6440이었다.

흡연지식수준은 정답을 맞춘 경우 1점, 아니다와 모르겠다 에는 0점을 주어 총점은 20점이 되며 평균점수를 계산하였고, 흡연태도수준은 바람직한 응답에 3점, 미온적인 응답에 2점, 바람직하지 못한 응답에 1점을 주어 총점은 60점 이 되어 평균점수를 계산하였다.

#### 3) 흡연하는 초등학생의 흡연경험과 실태

흡연하는 초등학생의 흡연경험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과거 및 현재의 흡연경험, 처음

흡연시기, 흡연동기, 흡연 장소, 담배구입경로, 흡연기간, 흡연빈도, 1일 흡연 량, 흡연 최초 경험 시 동기, 자신의 흡연에 대해 친구 부모 선생님 형제의 인지, 흡연 후 기분, 금연노력경험, 금연의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욕구대처, 금연의도 시 이유를 조사하였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자가보고 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에 걸쳐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의 협조를 받은 후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여 보건교사가 충분히 이해한 후,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록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응답내용이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고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확인시킨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배부전후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고, 4개 학교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선정된 대상자는 총 580명이었으며 설문지에 응답한 580명중에 분석이 가능한 545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 5. 자료 분석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2) 흡연률은 학년별, 성별, 본인이 지각하는 학업성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백분율을 이용

하였다.

- 3) 흡연하는 학생들의 흡연양상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4) 흡연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는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제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관련 제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53.4%(291명)였으며, 여자가 46.6%(254명) 차지하였고, 학년은 3학년 20.4% 4학년 29.2% 5학년 23.6%이었으며

<표 1> 일반적 특성 및 흡연관련 특성

(n=545)

특 성	구 분	빈도	백분율
학 년	3학년	110	20.4
	4학년	157	29.2
	5학년	127	23.6
	6학년	144	26.8
성 별	남	291	53.4
	여	254	46.6
친구 수	많 다	253	46.4
	보 통	247	45.3
	거 의 없 음	45	8.3
학교생활	재미있다	344	63.6
	그저 그렇다	197	36.4
본인이 지각하는 학업성적	잘하는 편	97	18.1
	보 통	384	71.6
	못하는 편	55	10.3
가족 중 흡연자 유무	있 다	316	58.5
	없 다	224	41.5
친구 중 흡연자 수	1명	36	6.7
	2명	16	3.0
	3명 이상	10	1.8
	없 다	472	88.4
흡연예방교육경험	유	385	71.0
	무	107	19.7
	모르겠다	50	9.2
흡연권유받은 경험	있다	44	8.1
	없다	498	91.9

※ 빈도(백분율)는 무 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6학년 26.8%이었다. 잘 어울려 노는 친구 수는 많다 46.4% 보통 45.5% 거의 없다 8.3%이었고 학교생활은 재미있다가 63.6% 그저 그렇다 36.4%이었다. 또한 본인이 지각하는 학업성적은 잘하는 편 18.1% 보통이다 71.6% 못하는 편이다 10.3%이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58.5% 없는 경우는 41.5%, 가까운 친구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13.4% 없는 경우는 86.6%,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자는 71%이며 받지 않은 자는 19.7%, 모르겠다 는 9.2%이었다. 흡연을 권유받은 경험자는 8.1%이었고 권유받지 않은 자는 91.4%이었다.

가족 중에 흡연하는 자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58.5%가 가족 중 흡연자가 있었으며 41.5%는 가족 중 흡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아직도 초등학생들의 과반수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구 중 흡연자는 11.5%이었고 본인의 친구 중 3명 이상이 흡연자인 경우도 1.8%나 되었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흡연권유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자는 8.1%이었다. 초등학생의 사회적 환경으로서 흡연을 권유하는 자를 차단할 수 있는 또는 권유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적 전략도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흡연예방교육 이수경험에 대하여는 71.0%가 받았으나 28.9%는 '받지 않았거나 모르겠다'로 나타났다.

## 2. 초등학생의 흡연경험

초등학생의 흡연률은 <표 2>와 같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은 0.5%(3명)이었고, 현재는 피우지 않으나 과거에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대상자는 10.3%(56명)이었고, 89.2%(486명)는 피워본 경험이 없었다. 이에 따

라 과거와 현재를 합한 흡연경험자는 10.8%(59명)이었다. 흡연경험자의 흡연양상은 <표 3>과 같다. 흡연경험자 59명중 담배를 처음으로 피워본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 2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이었으며 3,4학년이 14.9%, 5학년이 8.5%, 1학년이 4.3%, 6학년이 2.1%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동기는 주로 호기심이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장소는 자신이나 친구 집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담배구입경로는 집에서 아버지나 형제의 담배를 가져다 피우는 것이 3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구나 선배 23.3%, 가게, 길거리 순이었다. 가족 중 흡연자가 있을 경우 담배 구입이 쉬운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기간은 1일미만이 8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7일 13.2%, 30일 이상이 5.2% 순이었다. 흡연빈도는 94.9%가 몇 번 피우다 그만둔다고 하였으며, 흡연 최초경험 동기는 51.6%가 호기심이 생길 때라고 제일 높게 응답하여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는 교육방법이 고안되는 방안이나 호기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환경 조성과 흡연에 호기심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 방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표 2> 초등학생의 흡연경험 율

흡연경험	빈도(백분율)
과거흡연	56(10.3)
현재흡연	3( 0.5)
흡연경험없음	486(89.2)

※ 실수(백분율)는 무 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lt;표 3&gt; 흡연경험자의 흡연양상

(n=59)

특 성	구 분	빈도(백분율)
흡연상태	현재흡연	3( 5.1)
	과거흡연경험	56(94.9)
흡연최초시기	입학전	14(29.8)
	초등1	2( 4.3)
	초등2	12(25.5)
	초등3	7(14.9)
	초등4	7(14.9)
	초등5	4( 8.5)
	초등6	1( 2.1)
흡연최초경험시 동기	호기심으로	42(80.8)
	친구 및 선배가 권해서	7(13.5)
	기타	3( 5.7)
흡연장소	자기집 또는 친구집	14(31.1)
	학교 구석진 곳 또는 화장실	8(17.8)
	공터, 놀이터	8(17.8)
	기타	15(33.3)
담배구입경로	집(아버지나 형제 담배)	15(34.9)
	친구나 선배	10(23.3)
	가게	6(14.0)
	길거리	6(14.0)
	자동판매기	1( 2.3)
	기타	3( 7.0)
흡연기간	1일	31(81.6)
	2일~7일	5(13.2)
	30일 이상	2( 5.2)
흡연빈도	몇 회 피우다 그만둔다	37(94.9)
	1주일에 1~2회	1( 2.6)
	3~4개월에 1회	1( 2.6)
	매일 피운다	0( 0)
1일흡연량	1개피 미만	18(81.8)
	1개피	4(18.2)
	2개피 이상	0( 0)
흡연시기	일정하지 않다	4(12.9)
	친구와 놀 때	1( 3.2)
	호기심이 생길 때	16(51.6)
	기타	10(32.3)
금연의도	있다	31(93.9)
	없다	2( 6.1)

\* 빈도(백분율)는 무 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 율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흡연경험 율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성별에서 흡연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에 따른 흡연율은 4,5,6학년의 흡연율 3학년의 흡연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4학년에 서부터 흡연율이 많아지고 있는 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흡연예방교육은 3학년에서부터 미리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흡연 권유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경험 율의 차이

는 흡연을 권유받은 경험 있는 자와 경험 없는 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흡연예방교육 이수 경험유무나 가족 중 혹은 친구 중 흡연자 유무, 학업성적, 잘 어울리는 친구 수 등의 변수는 각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4. 흡연 예방에 대한 지식수준

흡연예방에 대한 지식수준 측정은 각 항목마다 정답을 맞추는 경우에 1점을 주어 20항목 전체의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5>와 같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

특 성	구 분	흡연경험자		흡연경험없는자		$\chi^2$ 값	p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성별	남	42(14.4)	249(85.6)	8.41	.004		
	여	17( 6.7)	237(93.3)				
학년	3	2( 1.8)	108(98.2)	19.15	.000		
	4	13( 8.3)	144(91.7)				
	5	23(18.1)	104(81.9)				
	6	21(14.6)	123(85.4)				
잘어울리는 친구수	많다	22( 8.7)	231(91.3)	2.67	.262		
	보통	30(12.1)	217(87.9)				
	거의없다	7(15.6)	38(84.4)				
학업성적	상	7( 7.2)	90(92.8)	1.47	.479		
	중	44(11.5)	340(88.5)				
	하	6(10.9)	38(89.1)				
가족중흡연자 유무	있다	36(11.4)	280(88.6)	.170	.68		
	없다	23(10.3)	201(89.7)				
친구중흡연자 유무	있다	11(17.7)	51(82.3)	3.19	.08		
	없다	48(10.2)	424(89.8)				
흡연예방교육 경험유무	있다	45(11.7)	340(88.3)	4.67	.09		
	없다	6( 5.6)	101(94.4)				
	모르겠다	8(10.9)	42(89.1)				
흡연권유받은 경험	있다	16(36.4)	28(63.6)	32.04	.000		
	없다	43( 8.6)	455(91.4)				

다. 총 20점 만점에서 평균 15.44점(±2.66)이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77.20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난 상위 항목을 정답을 순위대로 5순위까지 보면 간접흡연의 건강상피해 96.12% 흡연최초시기 빠를수록 건강상피해정도89.09%, 흡연자와 비 흡연자 사망률 비교 86.30%, 흡연자의 구강변화 85.98%, 흡연과 운동능력 83.55%이었으며 지식수준 정답 율 하위항목을 낮은 수준부터 5순위까지 나열하면 스

트레스 해소된 45.57%, 담배의 주요 3대 유해물질 62.53%,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위험 63.94%, 흡연과 피부손상 유해 66.3%, 뼈곰 담배의 유해 66.79%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지식 차이는 <표 6>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지식의 수준차이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변수는 학년, 성적수준, 흡연교육 경험이였다. 3학년보다 4·5·6학년이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자신이 인지하는 학교성

<표 5> 흡연예방에 대한 지식수준

순위	내 용	수준(%)
		(n=545)
1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96.12
2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상 피해가 더 크다.	89.09
3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86.30
4	담배를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85.98
5	담배를 피우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83.55
6	어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	81.92
7	담배를 피우면 심장기능이 약해진다.	81.85
8	담배의 중독성 및 습관성을 일으키는 성분은 니코틴이다.	81.15
9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많이 생긴다.	79.70
10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77.26
11	담배의 성분 중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은 타르이다.	76.48
12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아프게 된다.	76.44
13	담배를 조금씩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75.23
14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	69.87
15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면 태어나는 아기의 체중이 감소된다.	66.85
16	연기를 들며 마시지 않고 뼈곰 담배만 피우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	66.79
17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66.30
18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63.94
19	다음 중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모두 ○표 하세요. 1) 니코틴 ( ) 2) 타르 ( ) 3) 일산화탄소 ( )	62.53
20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45.57
평균 점 수		15.44 ± 2.66 (범위 0-20)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지식의 차이

(n=545)

특 성	구 분	평균±SD	t or F	P	Scheffé
성별	남	15.29±3.99	-.894	.372	
	여	15.60±3.23			
학년	3	14.24	7.281	.000	4,5,6>3
	4	14.89			
	5	16.20			
	6	16.20			
성적수준	상	17.09	11.664	.000	상>중,하
	중	15.09			
	하	14.64			
가족중흡연자	있음	14.94±4.00	-3.544	.000	
	없음	16.12±3.0			
잘어울려노는 친구수	많다	15.61	.548	.578	
	보통	15.30			
	거의없다	15.00			
친구중흡연자	있다	15.47±3.72	.029	.977	
	없다	15.45±3.65			
흡연교육경험	있다	16.14	26.359	.000	있다>없다,모르겠다
	없다	13.69			
	모르겠다	13.04			
흡연권유받은 경험	있다	15.42±3.67	-.16	.871	
	없다	15.52±3.69			
흡연경험	있다	14.93±3.60	-.99	.322	
	없다	15.49±3.66			

적수준이 보통이나 그 이하인 경우보다 상위수준 그룹에서 높았고, 흡연예방교육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그룹보다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친구 중 흡연자 유무나 흡연권유를 받은 경험 별 흡연예방지식 수준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5. 흡연예방에 대한 태도수준

대상자들의 흡연태도정도는 바람직한 응답에

3점, 미온적인 응답에 2점, 바람직하지 못한 응답에 1점을 준 결과 흡연예방에 대한 태도수준은 <표 7>과 같다. 흡연예방에 대한 태도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임을 의미한다. 총 평균은 항목별 3점 만점으로 20항목을 합하여 총 60점 만점에서 평균55.90점(±3.58)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20문항의 항목 중 바람직한 응답에 대한 백분율을 통해 흡연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항목을 상위항목 5순위까지 열거하면, 흡연기회가

있어도 피우지 않겠다, 친한 친구가 흡연해도 피우지 않겠다, 친구나 형제 흡연 시 말리겠다, 어른들의 흡연도 좋지 않다, TV나 잡지의 흡연 장면에도 흡연생각을 안 한다 순이었으며, 태도가 부정적인 하위항목 5순위까지 열거하면, 남자는 흡연해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절대로 흡연해서는 안 된다, 외국산 담배가 국산보다 몸에 덜 해로운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 담배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흡연자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태도 수준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흡연예방태도의 수준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본인이 인지하는 성적수준과 흡연 권유받은 경험유무의 두 변수이었다. 본인이 인지하는 성적수준이 '못하는 편이다' 집단보다 '보통이다' 혹은 '잘하는 편이다' 집단에서 태도수준이 높았으며, 흡연 권유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이 권유받은 집단보다 태도수준이 높았다. 성별, 학년별, 가족 중 흡연자, 잘 어울려 노는 친구 수, 친구

<표 7> 흡연예방에 대한 태도수준

(n=545)				
순위	내 용	평균	표준편차	수준(%)
1	담배를 피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피워보겠다.	2.94	.272	97.90
2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울 수 있다.	2.93	.301	97.57
3	형제나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말리겠다.	2.92	.321	97.24
4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2.91	.322	96.90
5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2.91	.322	96.90
6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다.	2.88	.412	95.90
7	담배가 해롭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2.87	.368	95.57
8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	2.87	.439	95.57
9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보라고 얘기하면 거절하겠다.	2.86	.463	95.24
9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도 된다.	2.86	.434	95.24
11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2.86	.471	95.24
12	담배를 피우면 어른스러워 보인다.	2.81	.493	93.57
13	담배 피우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2.79	.553	92.91
14	담배 자판기 설치는 금지되어야 한다.	2.79	.533	92.91
15	호기심에 한두번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2.75	.571	91.58
16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2.73	.631	90.91
17	담배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2.63	.723	87.58
18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	2.55	.567	84.92
19	외제담배가 국산담배보다 품질이 좋아서 몸에 덜 해로운 것이다.	2.45	.675	81.55
20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2.42	.759	80.59
평 균		55.90	±3.58	92.54

중 흡연자 유무, 흡연교육경험의 변수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흡연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라 지식수준의 차이는 있어도 태도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전략이 필요 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 중 흡연자 유무에 따라 지식수준의 차이는 있었으나 태도수준의 차이가 없는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직은 흡연예방에 대한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IV. 고 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 경험 을 10.8%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간경애(1999)의 연구에서 8.1%의 결과보다는 높게 났으며, 서울의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정순 등(2000)의 연구에서 10.2%의 결과와는 유사한 양상이었다. 반면에 경북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태도의 차이

(n=545)					
특 성	구 분	평균±SD	t or F	P	Scheffé
성별	남	55.70±3.87	1.37	.171	
	여	56.13±3.20			
학년	3	55.72	2.713	.044	
	4	55.89			
	5	56.71			
	6	55.48			
성적수준	상	57.04	9.326	.000	상,중>하
	중	55.87			
	하	54.49			
가족중흡연자	있음	55.65±3.67	-1.87	.062	
	없음	55.26±3.47			
잘어울려노는 친구수	많다	56.06	.548	.578	
	보통	55.90			
	거의없다	55.00			
친구중흡연자	있다	55.12±3.74	-1.75	.08	
	없다	56.01±3.58			
흡연교육경험	있다	56.15	2.944	.054	
	없다	55.54			
	모르겠다	55.00			
흡연권유받은 경험	없다	56.00±3.54	2.33	.020	없다>있다
	있다	54.61±3.93			
흡연경험	있다	55.36±3.90	1.18	.237	
	없다	55.96±3.54			

※ 빈도(백분율)는 무 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김상영(1994)의 연구에서 12.4%, 대구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은아와 홍해숙(2001)의 연구에서 22.7%,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정순(1999)의 연구에서 22.2%,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혜영(2000)의 연구에서 18.23%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낮은 양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흡연경험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며 이들은 호기심으로 인해 대개는 뼈끔 담배를 한 두번 피워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초흡연연령이 낮을수록 습관성 흡연군으로 고착된다는 결과(임웅 등, 1992)와 연관 지어 볼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현재의 흡연율은 0.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은아와 홍해숙(2001)의 연구에서 1.6%의 결과보다 낮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상영(1994)의 연구에서 5.6%, 최정순(1999)의 연구에서 5.0%, 최혜영(2000)의 연구에서 4.15%,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정순 등(2000)의 연구에서 6.3%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매우 낮은 양상이었다. 이는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과 지역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간경애, 1999; 강윤주와 서성제, 1995; 김상영, 1994; 안은아와 홍해숙, 2001).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Serena(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학생보다 학교와의 낮은 유대감 또는 흡연권유기회증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학년보다 4,5,6학년에서 흡연경험율이 높은 것은 저학년에서보다 고학년에서 학교생활의 흥미와 학업

성취력 저하 등 학교생활에서의 문제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경험 없는 아동보다 흡연경험율이 높았으며 이는 권유로 인해 흡연이 최초로 시작되고 있으며 흡연권유를 거절할 기술적인 의사소통력이 낮음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경험자의 흡연양상은 흡연최초시기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강윤주와 서성제(1995), 안은아와 홍해숙(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간경애와 김영혜(1999), 이광옥과 최혜영(2000)의 연구에서 5학년이, 문정순 등(2000)의 연구에서 4학년이, 최정순(1999)의 연구에서 6학년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전 시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흡연 최초 동기는 호기심이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정순 등(2000)의 연구에서 66%, 안은아(2001)의 연구에서 58.7%, 최혜영(1999)의 연구에서 58%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호기심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및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호기심 해소를 위한 공개적인 흡연 해독 실험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흡연 장소는 자기 집 또는 친구 집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이는 문정순 등(2000) 연구에서 47.8%, 안은아와 홍해숙(2001)의 연구에서 31.0%, 최혜영(1999)의 연구에서 49.28%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간경애(1999)의 연구에서 기타(오락실, 만화방, 비디오방) 62.0%, 김상영(1994)의 연구에서 야외 49.4%의 결과와는 상

이한 차이가 있었다. 담배구입경로는 집(아버지나 형제 담배) 36.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김상영(1994)의 연구에서 친구, 선배 38.0%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간경애(1999)의 연구에서 82.2%, 문정순 등(2000)의 연구에서 63.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흡연자로 인해 담배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어른들의 부재로 흡연이 집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혼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없도록 친구와 가족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유도하고 가정과 사회의 주의 깊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기간은 1일이 81.6%로 가장 많았고, 흡연빈도는 몇 회 피우다가 그만둔다가 94.9%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혜영(1999)의 연구에서 몇 번 피다 그만둠 87.06%인 결과와 일치하였고, 1일 흡연량은 1개 피 미만 81.8%로 가장 많았고 이는 안은아와 홍혜숙(2000)의 연구에서 1~2개 피 정도가 75%, 문정순 등(2000)의 연구에서 1개 피가 46%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니코틴으로 인한 흡연이 습관화되어 장래 흡연으로 가는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연에 대한 예방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예방지식 정도는 평균 15.44( $\pm 2.66$ )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흡연예방 지식 항목들 가운데에서 취약한 항목은 흡연과 스트레스 해소, 흡연과 피부손상, 뼈꿈 담배의 위해에 대한 내용으로 박영규와 강윤주(1996), 이광옥과 최혜영(2000)의 연구결과에서와 동일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 내용 중 이들 항

목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다루어져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 지식의 차이는 3학년보다 고학년에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수준이 보통이나 그 이하인 경우보다 상위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영규와 강윤주(1996), 이경미(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성적이 높을수록 흡연예방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예방교육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더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흡연예방교육의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예방태도 정도는 평균 55.90( $\pm 3.58$ )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흡연예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흡연행위에 대한 성차별적인 태도, 외국산 담배의 선호, 담배광고의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박영규와 강윤주(1996), 이광옥과 최혜영(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예방에 대한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아동들에게 단순한 보건지식의 전달보다는 흡연의 인체 건강상의 유해성에서부터 정신, 사회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태도의 차이는 본인이 인지하는 성적수준이 하위집단보다 상,중 집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영규와 강윤주(1996), 이경미(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성적이 높을수록 흡연예방에 대한 태도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권유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이 권유

받은 집단보다 흡연예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흡연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수준은 성적이 하위인 집단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으므로 성적이 하위인 집단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고 흡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은 흡연환경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 시기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여 습관화되지 않도록 가정은 자녀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며 학교는 보건교육을 통하여 흡연 경험 실태 및 유해성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담배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상호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예방지식, 흡연예방태도를 파악하여 초등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계획과 평가 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002년 11월 20일부터 11월28일 까지 전라북도 소재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교 4개교 3,4,5,6학년 545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과거 흡연 경험 율은 10.3%이었

으며, 현재 흡연율은 0.5%로서 과거와 현재를 합한 흡연 경험 율은 10.8%로 나타나 초등학생 대상의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은 성별 학년별 흡연을 권유받은 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집중적인 흡연예방교육 대상자는 고학년의 남학생으로서 흡연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 나타났다
3. 흡연경험자의 흡연양상에서 흡연 최초 시기는 입학 전이 2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흡연예방교육은 유치원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초흡연 동기는 중.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80.8%로 가장 많았고, 흡연 장소는 자기 집 또는 친구 집 31.1%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구입경로도 집(아버지나 형제 담배)이 3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자녀들을 수시로 관찰하고 가족원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필요 된다고 본다..
4. 흡연기간은 1일 미만이 81.6%로 가장 많았고, 흡연빈도는 몇 번 피우다 그만 둔다 가 94.9%로 가장 많았으며, 1일 흡연량은 1개 피 미만 81.8%로 가장 높았고, 흡연 시기는 호기심이 생길 때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예방교육은 71.0%가 받았다고 하였고, 동료나 선배로부터 흡연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8.1%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중 흡연권유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 초등학생의 흡연예방 지식수준은 20점 만점에 평균15.44(±2.66)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지식은 학년별 본인이 인지하는 성적수준별 흡연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고학년이면서 성적이 상위권이 고 흡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에서 흡연예방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속적인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6. 초등학생의 흡연예방 태도수준은 60점 만점에 평균55.90(±3.58)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태도는 본인이 인지하는 성적수준별 흡연을 권유받은 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적이 상, 중 집단이고 흡연을 권유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에서 흡연예방태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접수일자: 6월11일, 게재확정일자: 9월6일>

### 참고문헌

간경애.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간경애, 김경혜.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조사, 아동간호학회지 2000;6(1):51-59.

강윤주, 서성제. 국민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개입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5;8(1):133-142.

김상영.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학년생의 흡연 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문정순, 김남초, 양수, 박호란, 송경애, 정승교.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의 흡연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0;14(2):281-292.

박영규, 강윤주. 학동기 아동의 흡연행동 및 흡연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1996;17(9):798-809.

안은아, 홍해숙. 초등학생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경북간호과학지 2001;5(2):37-58.

이경미.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지식, 태도 및 흡연경험과 가족환경과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상은, 고복자, 강윤주.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음주, 흡연 및 약물오남용 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시 학교보건원 연보, 1995.

임응, 김광휘, 박월미, 이홍수, 이종훈. 고교생 흡연 실태 및 가족기능 지수와 흡연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992;13(7):592-601.

최정순. 초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최혜영. 초등학생의 흡연지식·흡연태도와 흡연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실태조사, 2000.

CDC.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programs to prevent tobacco use and addic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1994; 64(9): 353-360.

Greenlund, Kurt J., Carolyn C. Johnson, Larry S. Webber, and Gerald S. Berenso. Cigarette smoking attitudes and first use among third-through sixth-grad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97; 87(8):1345-1348.

Jackson, Christine, Lisa Henriksen. Denise Dickinson, and Douglas W. Levine. The early use of alcohol and tobacco: Its relation to children's competence and parents'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97;87(3):359-364.

Morris, G. S., Don, Anthony N. Vo. Stanley Bassin, David Savaglio, and Nathan D. Wong. Prevalence and sociobehavioral correlates of tobacco use among hispanic children: the tobacco resistance activity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1993; 63(9):391-396.

Price, James H., Prtrica Beach, Sherry Everett, Susan K. Telljohann, Laurentz Lewis. Evaluation of a three-year urban

elementary school tobacco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1998; 68(1):26-31.

Serena, Clayton.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School Health* 1991; 61(3):115-120.

WHO. Women and tobacco, WHO, 1992.



<ABSTRACT>

##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n Smoking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Young-sook Chung\* · Hyun So\*\*

\* *Departmen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Health Teacher, Wanju Whasan Primary School*

**The purpose :** This study was to get database of health service for smoking preven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state of the students' experience, knowledge and attitude on smoking.

**Method :**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545 students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3, 4, 5 and 6th grade of 4 primary school in J community.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Smoking Knowledge and Smoking Attitude questionnaire(40 items) developed by WHO(1982). Frequency,percentage,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with SAS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 :** Among the students 10.8% answered they had the experience of smoking, while 0.5% said they are current smokers. The experience of smoking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grade and received or not received of smoking exhort.

With regard to smokers smoking behavior, first beginning time of smoking was most by 29.8% preschooler and the first motive of smoking was most by 80.8% curiosity. The main smoking area is most by 31.1% own house or friend's house. The main purchase route of tobacco appeared by thing which house(father or brother's tobacco) most by 34.9%.

Smoking period was most less than 1 day and smoking frequency was most stops while burn sometimes. The amount for a day was less than one cigarette. Smoking time was appeared highest when curiosity occurs.

Students' knowledge level about smoking prevention is high comparatively to mean 15.44( $\pm 2.66$ ). Smoking prevention knowledge level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ade, academic score and learned or not of smoking prevention. Therefore, was expose that the smoking prevention knowledge level is high in students who results high grade, high academic score level and learned of smoking prevention.

Students' attitude level about smoking prevention was high level to mean 55.90( $\pm 3.58$ ). Smoking prevention attitude level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cademy score and received or not of smoking exhort( $t=2.33$ ,  $p=.020$ ). Therefore, was expose that the smoking prevention attitude level is high in students who result high academic score level and received of smoking exhort group.

**Conclusion :** It follows from this study that education for smoking prevention should be continued from lower grade students and teaching for refusal skill against smoking is needed.

**Key words:** School student,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Smoking experience